

아동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

김 세 원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 봉 주²⁾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서울시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동 1,785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학대경험과 적응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학대를 거의 경험하지 않은 ‘낮은 학대(89.2%)’,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1.9%)’과 ‘신체학대 + 정서학대(8.9%)’와 같은 중복학대집단을 포함한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적응의 경우, ‘높은 적응수준(54.4%)’, ‘중간 적응수준(36.7%)’, ‘낮은 적응수준(8.9%)’과 같이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들 간 전이확률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과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집단의 경우 ‘낮은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확률이 ‘낮은 학대’집단에 비해 더 높았고, ‘높은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확률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주로 중복학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대아동의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학대위험군과 적응위험군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학대아동을 위한 개입전략에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학대, 적응, 잠재적 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NRF-2008-005-J01301).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E-mail: sewonkim1@naver.com)

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I. 서론

아동의 학대경험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는 높은 우울 수준(나은숙·정익중, 2007; Danielson et al., 2005)과 공격성(Herrenkohl et al., 1997), 낮은 학업성취(Kendall-Tackett & Eckenrode, 1996), 높은 수치심 경향성, 거절불안, 거절분노나 거절우울, 낮은 죄책감, 분리·무관심, 비난원인의 외면화 경향성(황은수·성영혜, 2006)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은 전반적인 학교적응수준은 물론 환경, 교사, 수업, 친구, 생활 등의 하위영역별 학교적응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자, 2001).

이러한 학대의 부정적 발달결과에 대한 위험은 한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에 노출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서 더 높았다(Hazen et al., 2009). 단일유형 학대에 비해 중복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더 높은 분노, 높은 우울, 보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더 낮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였다(English et al., 2005; Lau et al.,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유형의 수와 정신건강 점수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Edwards et al., 2003), 우울증(Arata et al., 2005; Chapman et al., 2004), 약물사용문제와 위험한 성적 행동(Rodgers et al., 2004), 자존감 및 자살행동과 비행행동(Arata et al., 2005) 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은 신체적 학대

나 성학대만을 경험한 경우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과 자살행동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았으며(Bensley et al., 1999),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여자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에서도 경험한 학대유형의 수가 많을수록 행동 및 정서문제의 정도가 증가하였다(Bagley & Mallick, 2000).

이와 같이 아동이 노출된 학대유형의 수와 학대의 정도는 다양한 행동 및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한 가지 유형에 초점을 두거나 모든 하위유형별 학대경험의 정도를 합하여 사용하거나, 아동학대 경험 유무 또는 평균점과 같은 임의의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실제 아동이 중복유형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더라도 학대의 유형과 심각성을 모두 고려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단일 학대유형과 중복 학대유형을 범주화하는 변수를 사용하여 아동학대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Hazen et al., 2009). 연구에 따라 범주화된 학대의 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더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학령 전 위탁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피학대 아동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집단유형 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ears et al.,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대의 유형과 정도가 다른 6개의 집단을 발견했고, 집단 간 정신분열증, 분열형 인격 장애, 반사회적 장애, 회피성 성격장애와

수동-공격적 성격장애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Ruggiero et al., 1999). Romano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와 중복학대를 경험한 경우로 두 개 계층이 밝혀졌고, 중복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행동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4배 더 높았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학대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두 가지 중복학대 유형의 경우 임상적 증상에 대한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Hazen et al., 2009).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험한 학대유형의 수와 학대의 심각성은 모두 아동발달이나 적응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복학대유형을 고려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아동학대유형별 경험의 정도를 합산하거나 임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 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복학대유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균점이나 경험유무에 따른 인위적인 유형화가 아니라 전체 집단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잠재적 프로파일분석은 여러 학대유형을 조사함과 동시에 피해경험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영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발달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적응이나 발달지표도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및 정서적 적응과 행동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아동의 학대경험과 적응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학대유형과 적응유형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유형 및 정도를 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아동을 잠재적 유형(또는 프로파일)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학대경험에 대해서만 잠재적 집단을 설명한데서 더 나아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문제 및 적응 정도에서의 잠재적 유형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와 아동 적응의 잠재적 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판정을 받은 사례가 아니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실제 상당수의 아동학대사례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한 학대경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유형 및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 아동 가운데 학대고위험군 아동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하며, 실제 발생하는 학대의 유형 및 정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는 집단과 적응 위험집단 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아동학대 개입전략에 있어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잠재적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및 정서적 적응의 잠재적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학대의 잠재적 유형과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이 연구에서는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 내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학업 성취, 건강, 생활경험 및 가족환경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가능한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보고한 아동학대 및 아동의 발달정도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총 응답자 가운데 남자 아동은 52.0%(929명), 여자 아동은 48.0%(856명)이었다.

2. 측정도구

아동학대

이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지난 1년간 아동이 경험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정도를 아동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단순히 학대여부뿐만 아니라 각 학대유형별 경험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표준화된 도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선행연구(예를 들어, 김세원, 2003; 한지숙, 2004)의 문항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의와 측정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 외에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행위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등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방임은 아동을 위험 또는 불결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유형별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다=0’ - ‘일주일에 1-2번=4’)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학대 정도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학대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는 0.71로 나타났다. 각 학대유형별로 측정문항의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최종분석에서는 총점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적응

아동의 적응정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

학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를 근거로 하여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업성취,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각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 긴장, 염려, 두려움 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우울불안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를 오경자 등(1997)이 변안한 척도인 K-CBCL 가운데 우울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13개 문항(3점 리커트 척도)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2였다.

둘째, 주의집중은 여러 자극 가운데 특정 자극에 선택적 또는 집중적으로 반응하거나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집중은 K-CBCL 가운데 11개 문항(3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연구에서 주의집중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0.79였다.

셋째,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욕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격성은 K-CBCL 가운데 19개 문항(3점 리커트 척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공격성 문항의 Cronbach's α 는 0.83이었다.

넷째, 비행은 청소년의 지위와 사회적 규범, 규칙 등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의미하며, K-CBCL 가운데 12개 문항(3점 리커트 척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의 문제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비행의 Cronbach's α 는 0.64였다.

다섯째, 학업성취정도는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인 자기보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학업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가 출제한 시험에 대한 성적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능력을 언어 능력과 수리능력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어와 수학시험성적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과목별 만점은 1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Rosenberg가 개발한 10개 문항(4점 리커트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77로 비교적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정도는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학교규범 내에서 조화롭게 행동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정리한 문항 가운데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9개 문항(4점 리커트 척도)을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Cronbach's α 는 0.72이었다.

위와 같은 적응에 대한 각 변인별 측정문항의 수와 점수의 범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최종분석에서는 총점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아동학대경험과 적응에 대한 잠재적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PA)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잠재적 군집 분석의 한 종류로서, 점수들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이동귀·이수란·김혜영, 2009).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대한 3가지 아동학대유형의 경험정도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다. 아동의 적응유형은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업성취,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등의 7가지 변인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학대와 적응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이 밝혀지면, 이후 두 관심변수의 잠재적 유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내의 잠재적 집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MRT)값, 엔트로피 값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IC와 BIC 값은 더 적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며, LMRT가 유의미한 경우는 k-1개 모형보다 k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k개 모형을 선택한다. 또한 엔트로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절한 집단의 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은 Mplus 5.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 특성

연구대상자인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2004) 참여자 1,785명 아동의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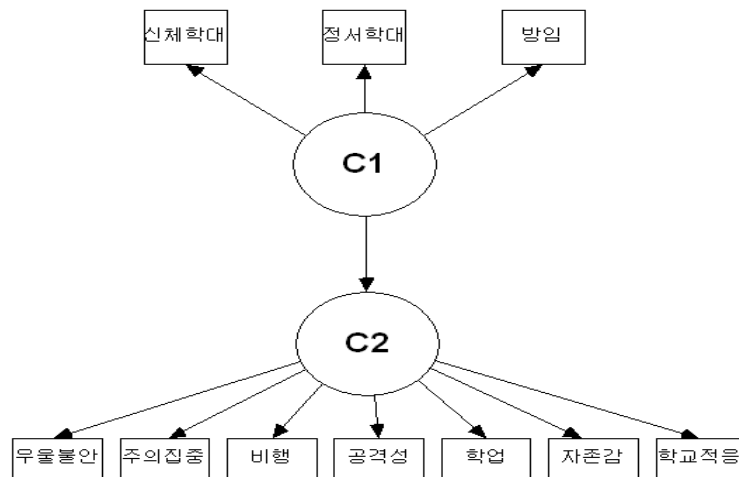


그림 1. 아동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표 1. 아동학대 유형별 경험여부(%)

학대유형	전혀 없음	1번 이상
신체학대	1,253명 (70.2)	531명 (29.8)
정서학대	1,084명 (60.7)	700명 (39.3)
방임	940명 (52.7)	844명 (47.3)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1,253명),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이 29.8%(531명)였다. 정서적 학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60.7%(1,084명),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39.3%(700명)였다. 방임의 경우,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52.7%(940명),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47.3%(844명)으로 나타나, 응답 아동들은 세 가지 학대유형 가운데 방임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에서는 세 가지 학대유형별로 한 번 이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경험한 학대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신체적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의 평균 경험정도는 2.34(표준편차=2.06)였으며, 범위는 1-13이었다. 둘째, 정서적 학대의 경우 평균 경험정도는 2.79(표준편차=2.27)로 세 가지 학대유형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정서적 학대 경험의 범위는 1-12였다. 셋째, 방임의 평균 경험정도는 2.61(표준편차=2.18), 범위는

표 2. 아동학대 유형별 경험 정도

학대유형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신체학대	531명	2.34	2.06	1-13
정서학대	700명	2.79	2.27	1-12
방임	844명	2.61	2.18	1-17

표 3. 아동의 적응 정도 (n=1,785)

구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우울불안	19.46	4.80	4-39
주의집중	16.13	3.96	10-33
비행	13.98	2.06	9-32
공격성	25.49	5.08	13-57
학업성취	19.17	4.48	3-30
자존감	29.92	5.04	11-40
학교생활	29.75	3.95	3-36

1-17이었다.

각 변인별로 살펴본 아동의 적응 정도는 표 3과 같다.

먼저 우울불안의 평균은 19.46(표준편차=4.80), 범위는 4-39였다. 주의집중의 평균은 16.13(표준편차=3.96), 범위는 10-33이었다. 비행의 경우 평균은 13.98(표준편차=2.06), 범위는 9-32였고, 공격성의 평균은 25.49(표준편차=5.08), 범위는 13-57이었다. 학업성취의 경우 평균이 19.17(표준편차=4.48), 범위는 3-30이었고, 자존감의 평균은 29.92(표준편차=5.04), 범위는 11-40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 평균은 29.75(표준편차=3.95), 범위는 3-36이었다.

2. 아동학대 프로파일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는 감소하였고, LMRT는 집단을 2개와 3개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 유의수준 $p<.01$ 과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MRT 값이 유의미한 모형 가운데 AIC와 BIC 값이 더 작은 3개 집단 모형이 아동학대의 잠재적 프로파일 유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아동학대 프로파일별 비율과 conditional response means는 표 5와 같다. 이 때 엔트로피 값은 0.97로 1에 상당히 근접하였으며 Jung과 Wickrama(2008)의 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표 4. 아동학대 잠재적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집단	Fit Index		
	AIC	BIC	LMRT
1	15197.32	15230.24	-
2	13441.46	13496.32	1706.87**
3	12632.23	12709.04	790.82*
4	12157.78	12256.53	466.86

* $p<.05$, ** $p<.01$

표 5. 아동학대 프로파일별 평균

구분	낮은 학대 (n=1,592, 89.2%)	신체+정서+방임 (n=33, 1.9%)	신체+정서 (n=159, 8.9%)
신체 학대	-0.28**	5.06**	1.73**
정서 학대	-0.19**	3.06**	1.25**
방임	-0.08**	1.54**	0.52**

** $p<.01$

각 집단의 비율은 모두 1% 이상이므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하위 유형을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에 이용된 학대의 정도는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신체적 학대(평균=-0.28), 정서적 학대(평균=-0.19) 및 방임(평균=-0.08) 등의 학대하위유형 평균점수가 세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체 사례 중 89.2%(1,592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따라서 이 프로파일 유형은 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낮은 학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신체적 학대(평균=5.06), 정서적 학대(평균=3.06) 및 방임(평균=1.54)의 평균점수가 세 가지 프로파일 중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은 세 가지 하위유형의 학대 정도가 모두 높아 중복학대에 노출된 고위험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중복학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사례 중 1.9%(33명)가 이 프로파일에 속하였으며, 전체 집단 가운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신체적 학대(평균=1.73), 정서적 학대(평균=1.25) 및 방임(평균=0.52) 가운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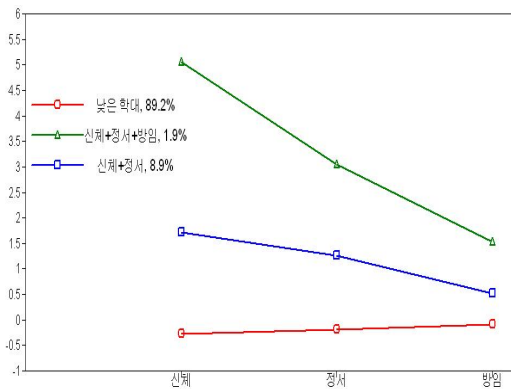


그림 2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

평균 점수가 ‘낮은 학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프로파일 유형은 중간 정도 수준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으로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사례 중 8.9%(159명)가 이 유형에 속했다.

그림 2는 이 세 가지 프로파일의 조건적 응답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3. 아동의 적응 프로파일분석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업성취,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사용하여 구분한 아동의 적응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 적응의 경우, LMRT값이 유의미하면서 AIC와 BIC값이 더 작은 3개 집단모형이 아동의 적응상태를 최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본다.

아동의 적응정도에 대한 프로파일별 비율과 conditional response means는 표 7과 같다. 아동 적응 변인 총점은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표 6. 아동의 적응 잠재적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집단	Fit Index		
	AIC	BIC	LMRT
1	35432.03	35508.85	-
2	32541.27	32661.99	2859.03**
3	31684.91	31849.53	858.03**
4	31313.19	31521.70	381.36

** $p < .01$

때 엔트로피 값은 0.84로 비교적 1에 가까웠고, 각 집단의 비율은 모두 1% 이상이였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 프로파일 분석결과는 자료를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프로파일의 경우, 우울불안(평균=-0.58), 주의집중(평균=-0.65), 비행(평균=-0.44) 및 공격성(평균=-0.56)과 같이 심리적 및 행동상의 문제의 정도는 3가지 집단 중 가장 낮았고, 학업성취(평균=0.19), 자존감(평균=0.44), 학교생활적응(평균=0.43)과 같이 긍정적인 적응지표는 3가지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가장 적응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높은 적응’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아동 중 54.4%(971명)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 아동의 적응 수준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우울불안(평균=0.45), 주의집중(평균=0.52), 비행(평균=0.25) 및 공격성(평균=0.37)이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학업성취(평균=-0.20), 자존감(평균=-0.40), 학교생활적응(평균=-0.39) 등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적응에 대한 모든 변인의 평균은 세 가

표 7. 아동의 적응 프로파일별 평균

구분	아동의 적응 정도		
	높음 (n=971, 54.4%)	중간 (n=655, 36.7%)	낮음 (n=159, 8.9%)
우울불안	-0.58**	0.45**	1.65**
주의집중	-0.65**	0.52**	1.84**
비행	-0.44**	0.25**	1.64**
공격성	-0.56**	0.37**	1.92**
학업성취	0.19**	-0.20**	-0.34**
자존감	0.44**	-0.40**	-1.01**
학교생활	0.43**	-0.39**	-1.02**

**p<.01

지 집단 중 중간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집단은 ‘중간 적응’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아동 가운데 36.7%(655명)가 이 집단에 해당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의 경우, 우울불안(평균=1.65), 주의집중(평균=1.84), 비행(평균=1.64) 및 공격성(평균=1.92)과 같이 부정적 변인의 평균은 세 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학업성취(평균=-0.34), 자존감(평균=-1.01), 학교생활적응(평균=-1.02)과 같이 긍정적인 변인의 평균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낮은 적응’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아동 중 8.9%(159명)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의 크기는 가장 작았다.

그림 3은 아동의 적응에 대한 프로파일을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업성취, 자존감,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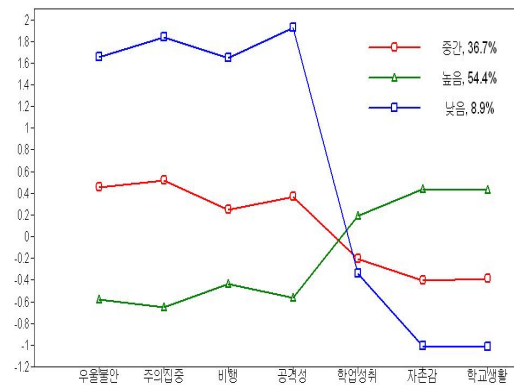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적응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

4. 아동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

다음에서는 아동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구하고 아동학대 유형별 적응유형에 대한 전이확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아동학대 3개 집단과 적응 3개 집단 모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표 8은 아동학대 유형에 조건

표 8. 학대 유형에 조건화된 적응 유형의 전이확률

구분		아동 적응 유형		
		높음	중간	낮음
학대유형	낮은 학대	0.60	0.34	0.06
	신체+정서+방임	0.11	0.56	0.33
	신체+정서	0.08	0.67	0.25

화된 적응 유형의 전이확률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낮은 학대’ 집단의 경우 ‘높은 적응’ 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은 0.60으로 가장 높았다. 즉, 학대 경험이 낮거나 거의 없는 아동의 과반수 이상은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낮은 학대’ 집단의 아동이 ‘중간 적응’수준 유형과 ‘낮은 적응’수준 유형이 될 조건부 확률은 각각 0.34와 0.06이었다. 따라서 학대 경험이 거의 없는 아동들이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중복학대 집단의 경우 ‘높은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은 0.11로 가장 낮았고, ‘중간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이 0.56으로 가장 높았다. ‘낮은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은 0.33이었다. 즉, 세 가지 유형의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낮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낮은 적응’수준 집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이 5배 이상 높았다.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 집단의 경우도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중복학대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적응’수준 집

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이 0.08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중간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은 0.67이었다. ‘낮은 적응’수준 집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은 0.25로 ‘낮은 학대’ 집단에 비해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 조건부 확률이 4배 정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자존감이나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표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학대경험과 적응에 대해 잠재적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대유형과 아동의 적응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임의의 기준이나 인위적으로 규정된 범주화가 아니라 전체 아동 집단 내에서 아동의 학대경험이나 적응정도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집단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학대

경험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첫째, ‘낮은 학대’ 집단은 세 가지 학대 하위유형의 점수가 모두 낮았으며, 전체 아동의 89.2%(1,592명)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아동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을 거의 경험하지 않거나 낮은 정도의 학대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중복학대 집단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모두 노출된 집단으로, 3가지 유형의 학대경험 정도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모두 높았다. 전체 대상아동 가운데 1.9%(33명) 정도가 이 집단에 속했고, 이들은 아동학대에 노출된 고위험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 집단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평균 점수가 세 개 집단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전체 아동 가운데 8.9%(159명)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학대 평균은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학대집단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여러 학대에 노출되었다는 측면에서 위험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과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 집단 모두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중복학대를 경험한 두 개 집단을 포함하여, 총 세 개 집단으로 아동의 학대경험 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중복학대가 발생

한 집단과 학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두 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Romano et al., 2006), 다른 연구에서는 방임+정서학대, 성적 학대+정서학대+방임,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성적 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과 같은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Pears et al.,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신체학대+정서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와 낮은 학대유형으로 구분되었다(Hazen et al., 2009). 즉, 연구에 따라 구분되는 아동학대유형의 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성인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대상과 측정한 학대유형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의 선행연구의 경우 대체로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4가지 하위유형을 모두 고려해 집단을 분류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한 성적 학대의 정도는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제도 내에 신고 되거나 학대고위험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류된 잠재적 프로파일 유형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중복학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일반아동 가운데 ‘학대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아동의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이 연구에서 나타난 중복학대집단인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과 ‘신체학대+정서학대’ 집단의 아동은 학대위험에 노출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제도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추정 학대아동 수에 대비해 아동학대신고율은 0.9%, 아동학대판정사례율은 0.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영분, 1999). 이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아동학대를 가족 내의 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여 대체로 심각한 아동학대사례가 주로 신고가 되며, 신고가 된 사례만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동보호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가 갖는 제한성 때문일 것이다.

잠재적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학대중단 및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교사나 의사 등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이것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아동의 적응유형에 대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이다.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업성취,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등과 같은 7개 변인을 고려한 적응 유형은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높은 적응'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및 공격성과 같은 정서 및 행동문제의 수준은 가장 낮고, 학업성취,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긍정적 적응 변인수준은 가장 높았다. 전체 아동 중 54.4%(971명)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과반수 이상은 적응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간 적응'수준 집단은 우울불안, 주

의집중, 비행, 공격성, 학업성취,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등의 모든 변인이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가운데 36.7%(655명)가 이 집단에 해당하였다.

셋째, '낮은 적응'수준 집단은 우울, 불안, 주의집중, 비행 및 공격성과 같은 정서 및 행동문제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학업성취, 자존감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가장 낮았다. 전체 아동 중 8.9%(159명)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의 크기는 가장 작았지만, 이들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아동학대 3집단과 적응 3집단 간의 관계를 잠재적 유형 간 전이확률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낮은 학대' 집단의 경우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이 0.60으로 가장 높고,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이 0.06으로 가장 낮았다. 즉, '낮은 학대'집단은 적응수준이 중간 또는 높은 집단이 될 조건부확률이 0.94(0.34+0.60)로 매우 높았다.

둘째,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중복학대 집단의 경우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이 될 조건부확률이 0.11로 가장 낮았고, '중간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확률이 0.56이었다. 그리고 '낮은 적응'수준 집단에 속할 조건부확률은 0.33으로 '낮은 학대' 집단에 비해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할 조건부확률이 5배 정도 더 높았다.

셋째,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집단의 경우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조건부확률이 0.08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중간 적응'수준 집단과 '낮은 적응'수준 집단에 속할 조

건부확률이 각각 0.67과 0.25였다. 즉, ‘신체학대+정서학대’ 중복학대집단의 경우도 ‘낮은 학대’집단에 비해 ‘낮은 적응’수준 집단이 될 조건부확률이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중복학대집단에 비해 경험한 학대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조건부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위험군과 적응위험군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단일유형보다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러한 중복학대유형 집단 아동의 경우 여러 정신건강 및 행동문제 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중복학대를 경험한 경우 행동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더 높고(Romano et al., 2006), 임상적 증상에 대한 점수가 더 높으며(Hazen et al., 2009), 경험한 학대유형 및 정도에 따라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정도(Pears et al., 2008)나 정신분열증, 분열형 인격장애, 반사회적 장애, 회피성 성격장애와 수동-공격적 성격장애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Ruggiero et al., 1999)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피학대아동에 대한 개입 역시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2차 자료를 사용하여 학대의 유형 및 학대의 정도를 측정하는데서 비롯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발달영역이 다른 학대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의 유형 및 정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가 만성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아동학대의 발생 정도를 설명하고, 장기적인 아동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숙, 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복지학, 28(4), 35-49.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성자 (2001).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들의 학교적응과 관련변수. *사회과학*, 13, 227-259.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동귀, 이수란, 김혜영 (2009).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애착 유형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55-67.
- 이영분 (1999). 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8, 135-160.
- 한지숙 (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 복귀 후 심리 행동적 적응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Arata, C., Langhinrichsen-Rohling, J., Bowers, D., & O'Farrill-Swails, L. (2005). Single versus multitype maltreatment: An examination of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1, 29-52.
- Bagley, C. & Mallick, K. (2000). Prediction of sexual, emotion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a longitudinal cohort of 290 adolescent women. *Child Maltreatment*, 5(3), 218-226.
- Bensley, L. S., Spieker, S., Van Eenwyk, J., & Schoder, J. (1999). Self-reported abuse histor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I. Alcohol and drug 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4(3), 173-180.
- Chapman, D. P., Whitfield, C. L., Felitti, V. J., Dube, S. R., Edwards, V. J., & Anda, R. F. (200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depressive disorders in adultho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2(2), 217-225.
- Danielson, C. K., De Arellano, M. A., Kilpatrick, D. G., Saunders, B. E., & Resnick, H. S. (2005). Child maltreatment in depressed adolescents: Differences in symptomatology based on history of abuse. *Child Maltreatment*, 10(1), 37-48.
- Edwards, V. J., Holden, G. W., Felitti, V. J. & Anda, R. F. (2003).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form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mental health in community respondents: Results from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8), 1453-1460.
- English, D. J., Upadhyaya, M. P., Litrownik, A., J., Marshall, J. M., Runyan, D. K., Graham, J. C., & Dubowitz, H. (2005). Maltreatment's wake: The relationship of maltreatment dimensions to chil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9, 597-619.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Hazen, A. L., Connelly, C. D., Roesch, S. C., Hough, R. L., & Landsverk, J. A. (2009). Child maltreatment profiles and adjustment problems in high-risk adolescents. *Journal of*

- Interpersonal Violence*, 24(2), 361-378.
- Herrenkohl, R. C., Egolf, B. P., & Herrenkohl, E. C. (1997). Preschool antecedents of adolescent assaultive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7, 422-432.
- Kendall-Tackett, K. A. & Eckenrode, J. (1996). The effects of neglec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disciplinary problem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20, 161-169.
- Lau, A. S., Lee, R. T., English, D., Graham, J. C., Briggs, E. C., Brody, K. E., & Marshall, J. M. (2005). What's in a name? A comparison of methods for classifying predominant type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9, 533-551.
- Pears, K. C., Kim, H. K., & Fisher, P. A. (2008). Psychosocial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children with specific profil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2(10), 958-971.
- Rodgers, C. S., Lang, A. J., Laffaye, C., Satz, L. E., Dresselhaus, T. R., & Stein, M. B. (2004). The impact of individual forms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health behavior. *Child Abuse & Neglect*, 28(5), 575-586.
- Romano, E., Zoccolillo, M., & Paquette, D. (2006). Histories of child maltreatment and psychiatric disorder in pregnant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3), 329-336.
- Ruggiero, J., Bernstein, D. P., & Handelsman, L. (1999). Traumatic stress in childhood and later personality disorders: A retrospective study of male patients with substance dependence. *Psychiatric Annals*, 29(12), 713-721.

1 차원고접수 : 2010.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0.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8.

Latent Profiles Analysis of Child Maltreatment and Adjustment

Kim, Sewon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Bong Jo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d profiles of experiences related to both maltreatment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rived profiles. The participants were 1,785 fourth grade children taken from a sample of the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in 2004.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hree child abuse profiles were identified: 'low maltreatment(89.2%)', 'physical abuse+emotional abuse+neglect(1.9%)', and 'physical abuse+emotional abuse(8.9%)'. Additionally, three adjustment profiles were identified: 'high adjustment (54.4%)', 'moderate adjustment(36.7%)', and 'low adjustment(8.9%)'. In our estimated latent transition probability, the 'physical abuse+emotional abuse+neglect' and 'physical abuse+emotional abuse' maltreatment groups were more likely to fall into the 'low adjustment' group and less likely to be found in the 'high adjustment' group. This study analyzed high risk groups of abused children and from this, was able to empirically extrapolate and uncover patterns of child maltreatment from within the general population. This finding suggested that the need for agencies to identify and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for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multiple types of maltreatment.

Key words : child maltreatment, adjustment, latent profile analysis